

‘마실꾼’ 영암 할머니들, 뮤지컬로 수다 배틀

전남문화재단, 브랜드 뮤지컬 ‘마실꾼들의 수다’ 기획 리딩 쇼케이스
조정 시인 ‘그라시제라’ 원작...남도 역사·사투리·K-pop 등 어우러져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총괄...고선웅 서울시극단 단장 연출 맡아

“오페오메 저 끝까지 꽃들이 하나 들어왔어라. 여간 이뻐고 고마와요.”
무대 위로 남도 할머니들의 정겨운 사투리가 울려 퍼진다. 알록달록 문패를 차려입은 시골의 할머니들이 마을 한 켠 정자에 모여든다. 이미 수십여년을 함께 한 이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군사정권 등 질곡의 현대사를 함께 건너온 이들도이다.
남도인의 고달팠던 삶, 피할 수 없었던 폭력과 맞닥뜨려 싸워야 했던 운명, 술한 사랑과 이별의 사연이 짙게 들어찬 이야기보따리가 흥겨운 음악과 함께 터져나온다.
전남문화재단(재단)이 전남 브랜드 뮤지컬로 기획한 작품 ‘마실꾼들의 수다’가 지난 17일 오후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에서 리딩 쇼케이스로 첫 선을 보였다. 리딩 쇼케이스는 정식 무대 전 대본과 음악 중심으로 구성된 시연 형태로, 본 공연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는 자리다.
작품은 조정 시인의 시집 ‘그라시제라’를 원작으로 한다. 1960년대 영암의 한 마을에 살던 여성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들이 겪은 시대의 폭력과 개인의 상처를 씹고치켜 펴 풀어낸다. 전쟁과 분단, 억압의 시대를 지나오며 가슴에 사연 하나쯤 품고 살아온 남도 여인들의 인생이 걸쭉한 사투리와 멜로디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국내 1세대 뮤지컬 제작자로 꼽히는 해남 출신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가 총괄을 맡았고,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을 연출한 고선웅 서울시극단 단장이 연출했다.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의 이정연 음악감독이 작곡과 편곡을 맡아 판소리, 트로트, EDM, 힙합 등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적 실험도 더했다.
제목의 ‘마실꾼’은 이웃집을 드나들며 동네 소식을 나누는 이들을 뜻한다. 시골 어르신들이 마을을 오가며 이웃집 대문을 슬쩍 들여다보고 “그 소식 들었어?” 하고 수다를 떠는 모습이 떠오른다. 이에 맞게 작품은 ‘수다 배틀’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할머니들은 수다 속에 생의 한을 풀고, 때론 아이들처럼 춤을 추며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되살린다. 구부정한 허리도 음악이 시작되면 쭉 펴진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다시 평범한 어미, 할머니로 돌아간다. 일상과 비일상이 오가는 경계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서사는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작품은 한편으로 6·25 전쟁의 민간인 학살과 같은 남도의 아픈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죽은 딸 복자를 떠올리며 밤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 지내던 어머니의 “우리 복자 혼이 굵이 굵이 저승길 돌아 어매라고 찾아와도 내가 낯설고 그 가스나를 못 바라” 같은 대사는 관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동시에 무대에 등장한 복자의 영혼



이 “괜찮아, 나는 씩씩하게 잘 갔어”라고 속삭일 땐, 위로의 정서가 극장을 감싼다.
공연은 이제 시작이다. 재단은 오는 2027년까지 이 작품을 브랜드 뮤지컬로 정식 제작해 전국 투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쇼케이스는 본 공연의 20~30% 수준으로, 아직은 미완의 형태다.
남도 사투리와 소리, 삶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은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다만 수다

형식으로 전개되는 구성상 뚜렷한 스토리라인이 부족하고, 다수의 인물이 등장해 관객들이 서사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보완 과제로 지적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는 “완성도 높은 무대로 발전시켜 전국 관객들이 찾는 전남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지난 16일 전남 브랜드 뮤지컬 ‘마실꾼들의 수다’ 리딩 쇼케이스가 펼쳐졌다. 쇼케이스의 한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고요함 속에 자적하다’

이병채 ‘자연-공감’ 전, 22일까지 아크 갤러리

‘속세를 떠나 얹매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유유 자적(悠悠自適)이라 한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은 저마다 유유자적한 시간을 꿈꾼다. 고요함 속 응시는 자기 자신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병채 작가의 작품은 오래도록 고요히 바라보는 맛이 있다. 그림과 눈을 맞추고 있노라면 직관의 풍경이 발하는 정밀함과 침잠의 순간과 맞닿는다.
동구 아크갤러리에서 오는 22일까지 진행중인 ‘자연-공감’ 전.
오랜 시간 자연 속에서 자적(自適)해 온 이미지들은 깊은 내공의 결실들이다. 동일한 제목들로 구성된 ‘자연-공감’ 작품은 수평선, 지평선의 경계 등을 작가만의 화법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모두 30여점의 작품이 걸렸다.
지난 2018년 갤러리 S 기획전 이후 7년 만에 광주에서 전시를 여는 작가는 “자연의 풍경을 심상으로 바라본 작품들”이라며 “상징하고 있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색을 덧칠함으로써 중첩의 효과를 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까이서 그림을 보면 무수히 많은 색점들이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반복적 색칠을 통해 밀도를 높임으로써 자연과 색채의 공감을 환기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작품에선 자연의 경계가 무화된다. 어디가 하늘이고 해인지, 바다와 산은 또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감성의 결도 다르게 다가온다.
안현정 미술평론가는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실험정신은 전체 작품세계를 아우르면서도 작품이 제작된 당시의 미감에 머물도록 한다”며 “붓과 롤러가 지나간 자리는 변화무쌍한 자연을 화폭에 반



‘자연-공감’

듯하게 옮겨놓은 듯 세련된 감각으로 빛난다”고 평한다.
한편 광주 출신 이병채 작가는 중앙대 예술대학 회화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중앙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경기미술협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 갤러리 1 초대전을 비롯해 한중일 현대미술교류전 등 다수 개인전 및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교향악단团员들의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색채의 향연, 낭만주의 음악을 채색하다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7월 25일 광주예술의전당

다채로운 색채의 낭만주의 음악이 여름밤을 물들인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제39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를 오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예술감독 이병욱의 지휘 아래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낭만주의 음악의 다채로운 색채를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음향으로 그려낸다.
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탄생한 세 작품을 통해 음악이 시대와 경계를 넘어 인간의 감각과 정서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느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연주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으로 시작된다. 스페인의 정열적 리듬과 극적인 전개가 어우러진 이 서곡을 오케스트라만의 화려한 에너지로 풀어낸다.
이어서 에두아르 라로의 ‘스페인 교향곡’을

선보인다. 프랑스 작곡가 라로가 스페인의 정취를 상상하며 쓴 이 작품은 5악장 구성으로, 민속적 리듬과 낭만적 선율이 어우러진다. 바일올리니스트 이수빈이 협연자로 나서 깊이 있는 해석과 기교로 이국적 감성을 무대 위에 펼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는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전탑회의 그림’. 시향은 이 곡을 라벨이 관현악으로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무소르그스키가 친구인 러시아 화가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에서 받은 인상을 곡으로 옮긴 이 작품은 각 악장이 그림 한 점을 그려내듯 색채감 넘치는 관현악으로 구현된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인간과 공존 ‘자연에 심상을 담다’

유순 ‘Four Seasons’ 전, 7월 13일까지 소암미술관

예술가는 자연을 통해 감정을 교감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로 구현한다. 이 때의 자연은 ‘객관적인 상관물’을 넘어 주관적인 심상으로 전이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명의 순환으로 상징한 유순 작가의 ‘Four Seasons -자연에 심상(心像)을 담다’ 전. 소암미술관에서 오는 7월 13일까지 펼쳐지는 전시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자연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조선대 미술대학 석사학위 청구전)이라는 관점을 투영했다.
여성의 올림머리 12점을 비롯해 총 30점을 선보이며, 반추상 형태의 작업의 면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전시는 지난 20년간 지속해온 작업들이 모두 3기로 구성돼 있다.
1기(2007~2019년)는 일상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회화작업이 주를 이룬다. 계절 변화에 따른 풍경인 ‘바다’, ‘순천만 사계’ 등은 강렬한 색채와 과감한 터치 특징이다.
2019~2023년 까지의 2기는 four Season의 형식

을 매개로 자연풍경을 초점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자연을 형과 색으로 단순화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초봄의 시골 풍경’, ‘한여름 밤의 숲’, ‘노을진 순천만의 가을’ 등을 만날 수 있다. 사계 시리즈에 부합하는 풍경이 작가 내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형상화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 3기(2023~2025년)에서는 ‘협변 스타일’인 올림머리로 구현한 여성들 삶이 펼쳐진다. 젊고 신선한 캐릭터의 ‘소녀 spring’은 귀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발한다. 멋스럽고 단아한 올림머리를 비롯해 우아하고 감각적인 올림머리, 입체적이면서도 쿼터한 분위기를 발산하는 올림머리 등이 형상화돼 있다.
한편 유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이미지를 사계절에 대입해 올림머리에 투영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자연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대상이지만 작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채로운 주관적 심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며 “색채와 구도 등을 시각적 이미지



‘여인_four season’

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발하는 사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소암미술관이 2025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KDM+,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관왕

강우준 ‘마트료시카 렌치’·임호현·강은비·임민선 ‘포레스트’ 본상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히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KDM+(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 회원들의 출품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의 KDM+ 회원인 강우준(조선대 디자인공학과 4학년) 씨, 임호현(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씨 등 3명의 작품이 각각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차지했다.
강우준 씨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에서 모티브를 얻은 욕도렌치 디자인 ‘마트료시카 렌치’로 호평을 받았다. 다양한 욕도 렌치를 하나의 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임호현·강은비(전북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4년)·임민선(제주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4년) 씨는 데스크테리어 제품 ‘포레스트’로 본상을 받았다. 책상 안으로 자연의 감성을 투영해 업무 공간을 감각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김용모 원장은 “이번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에서 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KDM+ 회원들이 수상을 한 것은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진흥원은 향후에도 지역 우수 인재들의 디자인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